

## 9월의 Story 「젊은 꼰대(젊은 꼰대)」

‘꼰대’라는 단어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를 속되게 말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꼰대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 사이들에서도 꼰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젊은 꼰대’가 매우 드물 것 같지만, 모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75.4%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2030 젊은 꼰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합니다. 우리 주위에 젊은 꼰대가 흔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꼰대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주변의 시선과는 너무나 달라 조직 내에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권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후배들을 잘 이해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등 동상이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MZ세대는 4050세대는 젊은 세대와 차이라도 인식하지만 젊은 꼰대는 스스로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 같은 현상을 상기해 볼 때 사실 ‘꼰대스러움’과 나이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젊은이든 기성세대 꼰대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며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과도한 ‘오지랖’ 또는 ‘나 때는 말이야’와 같은 태도의 자제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조언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꼰대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역지사지 마인드가 회사 전체에 뿌리 내릴 때 우리 일터의 문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 꼰대의 6하 원칙

- Who 내가 누구출이야? What 뭘안다고  
When 나 때는 말이야 How 어떻게 나한테?  
Where 어딜감히? Why 내가 그걸 왜?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직장인 명절 포비아 4가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들뜨고 기대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직장인 5명중 2명은 ‘명절포비아’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 포비아는 ‘명절+공포증(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를 기피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결혼 여부에 따라 스트레스 유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직원 중 명절 포비아를 겪는 직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미혼]

1. 어른들 잔소리 부담 (57%)
2. 용돈, 교통비 등 경비 부담 (38.5%)
3. 코로나19 감염 노출 염려 (33.6%)
4. 친척들과의 비교 (22.5%)

## [기혼]

1. 용돈, 교통비 등 경비 부담 (51%)
2. 코로나19 감염 노출 염려 (36.1%)
3. 처가, 시댁 식구가 불편 (25.9%)
4. 어른들 잔소리가 부담 (18.4%)

## 9월의 고충 키워드 「 건강 」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내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제도와 관련하여 KT119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사를 공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지금 바로 써먹기 좋은 소통 Tip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묻은 한 설문조사에서, '건강'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더 관심을 보였던 예년의 설문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끄니다.

1. 건강관리 (19.5%)

2. 재테크 성공 (17.1%)

3. 이직/창업 (15.2%)

4. 자격증 취득 (12.8%)

5. 외국어 능력 향상 (12.2%)

※ 출처: 휴넷(직장인 820명 응답)

[건강검진] 건강검진시 어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건강검진 당일 1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2일)

[건강검진] 검진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검진을 받기 전 6~8월 중 매월 1~7일 사이에 검진기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직원 가족의 검진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원과 동일하게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본인 및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만 26세 이하 자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남성직원도 사용가능한가요?

네, 남녀 관계없이 연 3일 사용가능합니다.

## 주요 고충개선 사례



Q.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해야 하는데 PC가 말을 안 들어요. 이른 아침이라 도움도 못 받고 답답해요.

A. 아침부터 급한 일은 처리해야 하는 직원 분들에게 PC와 OA 에러 발생 등은 여간 불편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은 동료 분들도 드문 시간대라 도움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이에 IT헬프데스크가 8월 27일부터 PC, OA 상담시작 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30분으로 변경하여, 직원 분들이 업무시간대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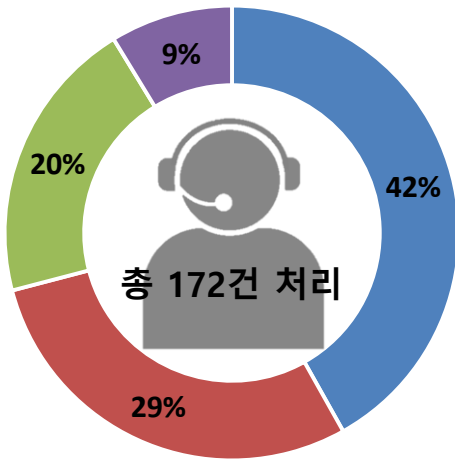
Q. D사옥 지하주차장 내 이중주차가 심해 퇴근시간이 지체됩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A. 지하주차장 내 이중주차 실태를 확인해보니 브레이킹을 한 채 주차를 하였거나, 대형 SUV 차량이 많아 여성직원 단독의 힘으로 차를 밀지 못 하는 사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매일 퇴근 전 사옥방송을 통해 이중주차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주차장 입구 쪽에도 협조 안내문을 부착하여 현재는 이중주차와 관련한 고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 8월 고충처리 성과

### 1. 노사상생센터



#### 1 복무 (72건)

휴가(36건), 근무유형(16건) 등

#### 2 업무 환경 (50건)

사무용 OA(26건), 작업용품(6건)

#### 3 사옥 이용 (35건)

시설 이용(14건), 업무·휴식 공간(12건)

#### 4 인사 (15건)

인사운영(6건), 법·제도(6건) 등

### 2. 고충토론회

[총 117명 참가, 고충처리 111건]

#### 강남/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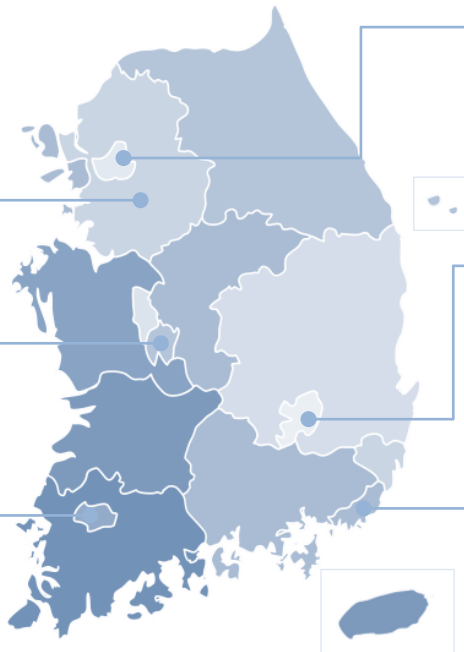
- 참석인원 : 26명
- 고충처리 : 총 26건

#### 충남/충북

- 참석인원 : 15명
- 고충처리 : 총 17건

#### 전남/전북

- 참석인원 : 15명
- 고충처리 : 총 17건



#### 강북/강원

- 참석인원 : 23명
- 고충처리 : 총 24건

#### 대구/경북

- 참석인원 : 17명
- 고충처리 : 총 10건

#### 부산/경남

- 참석인원 : 21명
- 고충처리 : 총 17건

### 3. 고충처리위원회

전국 233개 고충처리위원회 699명의 고충처리위원님들이  
총 357건의 고충을 처리하셨습니다.

고충처리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고충토론회 우수사례 「강북/강원광역본부」

### 고충토론회의 일상화로 직원들의 숨은 목소리까지 캐치!

강북/강원광역본부의 내 상당수 기관들은 매월 작년과는 달리 매월 고충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달 접수된 고충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제3의 고충들을 고충처리위원들이 미리 검토하고 토론회에서 다루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충처리의 내실을 다지고 직원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숨은 고충

### 다른 곳의 고충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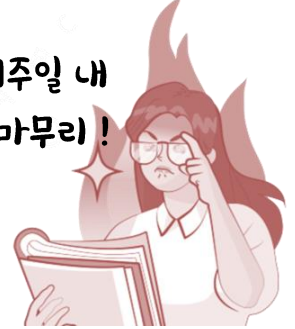
강북/강원광역본부 고충토론회의 또 다른 특징은 타부서 고충처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고충토론회를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거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부 내 다른 지역 고충토론회 안건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거나 KT119 소식지, 고충리포트 등 고충처리 관련 홍보물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토론참가자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편하게 말문을 열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 해결할 수 있는 고충은 늦어도 1주일 내 마무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고충을 제때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강북/강원광역본부는 고충토론회에 접수된 고충 중 자체적으로 해소 가능한 것은 늦어도 7일 내 조치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해소의 기한을 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지만, 기한내 고충해소라는 목표 의식과 실천이 자리잡아 가면서서 고충처리의 체계가 잡혀가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주일 내  
마무리!



## 책으로 나누는 고충 이야기

도서를 통해 고충처리(치유), 소통, 리더십의 소중한 가치를 고충처리위원님들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 리더의 말그릇 (김윤자 지음)

사람은 누구나 말을 담아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그 크기와 깊이 만큼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만드는 리더의 말 그릇에 대해 알려줍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더의 질문 기술, 3F 피드백의 기술, 요청과 칭찬의 3C 공식, 면담 전 액션 시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 그릇을 가진 리더와 일하는지에 따라 성장의 가능성과 성과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소통의 좋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충리포트는 고충처리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른 고충처리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도서나 고충리포트에 바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께는 고충리포트에서 소개된 도서를 증정합니다.



### 듣기의 힘 (후쿠다다케시 지음)

'말하기'와 '듣기'는 자전거의 두 바퀴 같아서 어느 한쪽이 빠지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말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듣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동안 '말하기'에 비해

'듣기'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대화에서 제대로 듣지 않으면 상대의 의도를 모르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으면 보다 많은 정보와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과 대화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 창조적인 리액션 등을 상황별 실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